

張 친족, 측근의 숙청. 주민통제 강화와 잔혹 처형 소문도 확산

북한 주민들 속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당국이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후속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21 부터 23 일까지 진행된 북한 내부의 복수의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와 기자의 통화 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

장성택은 포를 쏘 처형? 확산되는 여러소문

21 일 북한의 북부 국경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 김씨는 장성택의 처형에 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 우리○○ 당 비서가 군(행정단위) 당 책임비서에게 들었다는 말로 소문이나 있는데 장성택을 총살한 것도 불태운 것도 아니고 포로 쏘 죽였다고 말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23 일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 안씨는 통화에서

“ 장성택은 총살한 게 아니고 불태워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살하면 시체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 배신자는 우리 조국 땅에 묻을 필요가 없다’ 면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22 일 장성택의 정변 음모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앞서 이야기한 취재협력자 김씨는

“ 지금 여기서 장성택이 나이가 너무 어린 분이 대통령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 했다고, 그래서 측근을 모으기 위해 과오를 범해 ‘ 혁명화’ 로 지방에 내려갔던 사람들도 자기 옆으로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장성택 친인척 총살 후 조카며느리는 추방, 장씨의 측근들도 평양으로 호출

같은 날 22 일, 현재 장성택과 연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 진행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씨는

“ 지금 우리 군(행정단위)에 장성택의 조카며느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부모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 37 살 정도인데 사람들 말로는 장성택 친척들은 총살해 없었어도 며느리들은 남남이니까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와 같은 취지로 묻는 기자의 질문에 22일 취재협력자 김씨는
“ 여기에 장성택 회사라고 불리던 54 국 소속 외화벌이 기지가 있는데
기본은 석탄을 판매합니다. 기지 책임자와 간부들이 평양으로 불러 올라가고
군당 책임비서도 올라갔습니다. 군당 책임비서는 장성택과 몹시 가까운
사이였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 54 국은 국방위원회 직속 외화벌이 단위로 김정일 사후 장성택이 인계

김정숙 생일 맞으며 장사도 못 하게 해

23 일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들의 교양과 통제 상황에 대해 묻는 말에
안씨는

“ 각 기관 기업소 간부들에게 지시가 내려와 이번 애도 기간에 직장
출근하지 않았거나 자기 지역 내에 없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4 일 ‘ 김정숙 어머니 생일 ’ 을 맞으며 어떤 장사도 다 중단하라고
포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 장마당에서도 장사하지 말라 ’ 이러는데, 장사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장사 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이 3 대 세습을 단행하며 벌린 장성택 처형사건으로 북 주민들이
현 정권에 큰 불쾌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진행되면서 그 피해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